

시론



박노식 시인·시연영원장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없이, 어찌

면 내 마음과 대화할 만한 내면의 창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이 도시인들의 특징 같기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에서도 필자의 빛은 오히려 넘쳐난다. 새는 말할 것도 없고 개미, 거미, 풀벌레, 나비, 개구리, 잠자리 등, 창문을 열고 올려다보는 흰 구름은 아주 몽환적이어서 시상을 제법 여러 번 가져다주기도 했다.

어느 늦봄 무렵이었다. 아래 만에 대처에서 돌아와 별을 찌르고 마당가에 서 있는데 고양이 꼬리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탁자 아래서 곤히 쉬고 있었더니 생각했는데 움직임을 없애서 큰 소리로 불렀으나 여전히 그대로였다. 다가가서 보니 이미 죽은 채 구더기만 들끓고 있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이 녀석의 주인은 본디 산 아래 맨 위 하얀 이층집, 부잣집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집을 떠나 흠뻑비에 젖어와 버린 것이다. 처지가 비슷해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론 변변치 않은 살림에 걱정도 되었지만, 보름 후엔 불현듯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더니 양털 뿌리듯 끼니를 내어달라는 것이어서 어이없어하다가 곧 굴복하고 말았다. 이리 살갑게 지내다가 한 달 후, 생존을 위해 대처에 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지경을 맞이한 것이다.

아무래도 잔하고 애달파서 땅을 파고 그를 넣고 그 위에 꽃잎을 따다 뿌리고 분분을 만들면서 그를 달래주었다. 놀라운 것은 새끼 세 마리가 울타리 끝에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게 어미의 사후에 대한 예측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생을 보내고 장차 후손들에

게도 이 사실을 알려." 생각해 보니 어미가 그 부잣집을 떠나 굶어 이곳으로 온 것은 그 측은지심을 필자에게서 발견해버린 듯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버렸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이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소중함 내면이다. 시인 백석(1912~1996)의 시 「수라(修羅)」를 읽다 보면 그게 보인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야모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린다./차디 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러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나는 가슴이 찢릿한다./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찬 바람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거미가 씩기도 전이다./어디서 씹살만 한 앞에서 가제 개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머물거린다./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내 손에 오르기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사슴』, 1936)

가족 잃은 새끼 거미 한 마리를 보고도 이처럼 '가슴이 찢릿하고, 메이는 듯하고,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고, 나아가 슬퍼지는 것'인데, 이런 측은지심도 없이 오직 구호만으로 표를 구했으니 서러움 많은 민심이 어찌 움직이거나 했겠나. 멍청이들이, 문제는 진정한 측은지심이야. 너희에겐 그게 없잖아.

볼과 며칠 사이에 산과 들이 마치 흥여이라도 앓듯 들끓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봄의 절정에 이르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갈 때의 초조함이 꽃잎을 통해 여실히 느껴진다. 그동안 올라오느라 숨이 가쁘고 가슴이 터질 듯이 힘겨웠을 것이므로 다시 평온의 세계로 돌아가 자신만의 심연 속에서 잠시 내면을 들여다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요즘 자주 찾아온다. 인간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사색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을 통찰할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가 창작을 불모로 삼아 태악산 아래 터를 잡고 시 쓰기에 매진한 지 10년이 흘러가고 있다. 다섯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시화집이 출간되는 동안 아득을 찾아오는 이는 손꼽아 이름을 외울 만큼 극소수다. 그러나 찾아와도 적막간산 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 내면의 그 무엇인가를 펼쳐내지 못하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도시인들의 공통점은 고요와 적막의 세계를 몹시 못 견뎌 한다는 것을 여기에 살면서 알게 됐다.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빈 것을 참아낼 수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초조, 달리 말하

기고



박장순 수원대학교 미술예술학과 교수

첨단기술 시대를 AI 활용한 미용시장의 개편

이렇듯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용산업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진일보해야 할 시점이다. 첨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용산업계에도 자동 모발 세정기, 최첨단 두피 진단기, 헤어스타일 분석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흥망성쇠를 거듭 중이다. 이중 헤어미용, 네일미용, 피부미용보다 더욱 AI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혁신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는 단연 메이크업 미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는 보정 앱을 통해 AI로 본인 얼굴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메이크업 필터 AI는 메이크업 시장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메이크업 필터 AI는 본인 얼굴에 부합하는 톤(ton)과 화장법을 정밀하게 제시하면서 최적화된 메이크업을 제안한다. AI 메이크업 기술은 컴퓨터의 얼굴 인식 기술과 기계 학습의 알고리즘(algorith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피부 톤을 분석함과 동시에 개성미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 더욱 아름답고 정교한 메이크업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AI 메이크업 기술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과 다양한 효과를 선택하여 본인 얼굴에 가상의 메이크업을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시각화해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술하기 전 다양한 컬러와 이미지로 여러 옵션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확성을 구비한 얼굴분석과 메이크업

시술을 제안하는 AI 메이크업 기술에서 창의성과 개인적 취향은 아쉽게도 배제되는 점이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전 중인 AI 메이크업 기술은 미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진보할 것이다. 메이크업 미용인과 일반 고객에게 맞춤형 메이크업의 정확한 제공과 현실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인 경험을 제공하기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라 예측된다.

메이크업 미용 사례에서 보듯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도전은 미래 미용산업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의 직업 영역을 침범하는 근자(近者) 추세로 인하여 현대인 직업군은 변화무쌍하게 변모 중으로 대형마트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계산원 급감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인간의 감각적인 손끝에서 창출하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미용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하면 기계나 첨단기술로부터 덜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안주해 새로운 아이템 구상이나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용산업도 타 직종처럼 기계문명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 분야도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AI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 모색해야 미래 미용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선도할 것으로 사료한다.

독자투고



따뜻한 봄이 다가온 만큼 봄바람을 타고 접근하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이 다시 유행이다. 로맨스 스캠은 보통 이성관계 형성할 것처럼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해서 친분과 신뢰를 쌓은 후, 상대의 마음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이다. 주로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 "직업이 미군인데 작전 수행 중 큰 돈을 발견했다. 한국에 가서 이 돈으로 너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 등의 말들을 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흔든 뒤, 도움을 요

사랑으로 속이는 사기, 로맨스 스캠

청하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실제로 2022년에는 미군 여군을 사칭한 피싱범들에게 한 남성이 1억이 넘는 금전을 송금하는 사례가 있어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2월, 3월에 발생한 피해액만 190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먼저, SNS 등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상대방이 보내는 URL을 눌러봐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된다면 대화 내용, 계좌번호와 입금내역, 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즉각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기 URL을 눌러봤다면 즉시 차단을 신청하고 시티즌 코난과 같은 피싱 예방 어플을 설치, 검사를 실시하고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환심을 사서 행해지는 범죄다. 한 번 당하면 그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은 진심으로 대했으나 사기임을 알고 느끼는 상실감과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 봄 날 봄바람 불 듯 다가오는 로맨스 스캠, 예방에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정재성·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한계기업 속출 우려 광주 제조업 지원대책 급하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조업 투자계획 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가 투자 축소 또는 보수적 운영 의향을 나타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재고 증가 등 수요 부진,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 수출경기 및 기업 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소수의 투자 확대 예정 업체들은 선제적 투자 전략의 일환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기업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확대 및 마케팅 강화에 우선해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전산화 등 공정 개선, 인력 개발 및 인재 확보, 부품 및 자원 개발 투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신기술 개발, 공정 개선 등 혁신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이 전혀 없거나, 10% 미만에 그쳤다.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 대내외적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데다 고금리·고물가 등 불안요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실적 악화로 제조업의 부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광주 지역은 여전히 취약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투자, 경영 혁신은 그야말로 연감생신이다.

금융권 빛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이차전지도 버거운 한계기업 역시 많아질 우려가 크다. 장기 침체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계속된 고금리로 차입금을 상환 못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정부지 불기도 상당한 변수다.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광주상의는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내수 진작과 더불어 기업 자금난 경색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입법 지원이 필요한 때다.

무덥고 비 많은 역대급 여름 예보 철저한 대응 필요

기상청 날씨 예측에 따르면 올해 여름 광주에는 유례없는 더위가 닥칠 전망이다. 폭염일수가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54.5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46.2일로 조사된 것이다. 이른바 광프리카 현상이 어김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열대야도 만만찮다. 제주 57.9일, 부산 47.3일 다음으로 긴 46.2일로 전국 3번째 수준이다. 지난 해보다 비도 더 많은 양이 내리겠다. 광주의 예상 강수량은 1천422.8mm로 제주 1천820mm, 전남 1천517.6mm, 부산 1천446.2mm, 경남 1천421.1mm 다음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여름철, 광주는 폭풍 쥘는 폭염과 예년보다 잦은 비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가 심화되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는 지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을 아시아로 꼽았다. 실제로 지역 수온 상승 온도가 전 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이나 빨랐으며, 지난해 한반도 북서태평양 바다물은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다.

30도를 넘나드는 역대급 4월 고온으로 봄이 사라지고 여름이 시작되는가 싶었다. 그러더니 곧 비가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한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날씨다. 우박이 쏟아지는 중동의 사막, 대규모 홍수가 강타한 중국 등과 비교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긴 한데, 한반도의 경우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당장 장마기간 만만히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예년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며 더 지속적으로 전선이 정체돼 기록적인 폭우를 뿌릴 가능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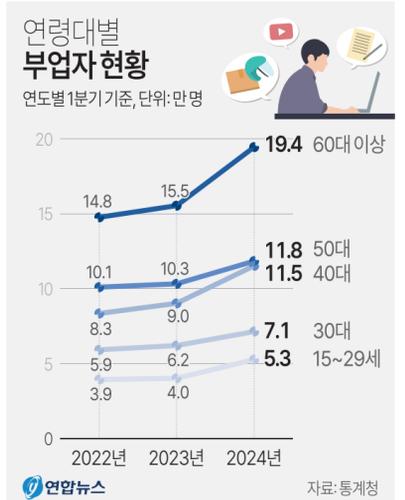
무더위의 기세가 무서울 듯싶다. 그동안 해마다 평년보다 심할 것이란 예보가 나왔지만 올해는 유독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폭염일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가공위력의 태풍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만일의 재난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겠다.

그래픽 뉴스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 45만1천명)보다 22.4%(10만1천명) 늘어난 5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9년 1분기 1.3%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지난해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8천명), 40대(11만5천명) 순이었다. 30대(7만1천명)와 청년층(15~29세·5만3천명)은 10만명을 하회했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에서 뚜렷하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천4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0대 부업자는 같은 기간 27.7%(2만5천명) 늘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60대 이상(25.1%·3만9천명), 30대(14.9%·9천300명), 50대(14.7%·1만5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